

사카노 토오루, 『조몬인과 야요이인: 「일본인의 기원」 논쟁』 (도쿄: 중앙공론신문, 2022). 320쪽 [坂野徹, 『縄文人と弥生人: 「日本人の起源」論争』 (東京: 中央公論新社, 2022).]

김범성†

“고고학 민족주의”에 관한 과학사 분석

저자인 니혼 대학의 사카노 토오루(坂野徹) 교수는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과학사를 공부하고 특히 제국주의나 민족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필드 사이언스의 역사에 대해 분석을 해 온 과학사학자이다. 이 책에서는 근대 일본에서 전개된 고고학 및 인류학의 실천과 담론을 중심으로, 과학사적인 관점에서 민족주의와의 관련에 대해 고찰한다.

중학생 시절, 국수주의 소년이었던 평자는 국사 교과서를 읽으면서 큰 혼돈에 빠진 적이 있다. 고조선이 탄생한 것은 기원전 2333년이라는데, 페이지를 넘기면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당시의 교과서에서는 이 지역에서 청동기 문명이 성립된 것은 아마도 기원전 10세기 전후였다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천 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듯 실증과학을 표방하는 고고학은 고대 신화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고학은 건국 신화와 관련된 민족주의가 “과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하다. 이 책에 따르면, 메이지 시기 일본을 방문했던 서구인들은 조개무덤이나 석기, 토기와 같은 유물이나 유적, 그리고 『고사기(古事記)』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재된 “동방 정벌”이라는 서술을 참조하여, 원래 아이누(“인간”이라는 뜻)의 조상이 거주하던 지역에 일본인의 조상이 이주해 와서 투쟁에 승

† 도쿄이과대학 교양교육연구원, bounsoung@rs.tus.ac.jp

리한 결과 지배적인 집단이 되었다는 “인종 교체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조몬(縄文) 토기를 남긴 것은 아이누의 조상, 야요이(彌生) 토기를 남긴 것은 일본인의 조상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고학이나 인류학은 신화적인 설명에 의존할 수는 없었다. 특히 1920년대에 접어들어, 방대한 고인골(古人骨) 계측 데이터를 분석하여(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연구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토기나 석기 등 선사시대 유물을 남긴 것은 일본인의 조상이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열도 주민의 특징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힘들게 되었다. 아울러 일본인의 조상이 해외로부터 이주했다는 주장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반발도 존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세기에 접어들어 “인종”과는 별도로 “민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보급되면서 “인종”은 생물학적 개념, “민족”은 문화적 개념이라는 구분이 정착되었고,¹ 이러한 상황에서 고고학자들은 “인종”의 문제를 (자연)인류학의 몫으로 넘기고 자신들은 주로 석기나 토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석기를 중심으로 한 유럽식 연구방법이 도입되었으나, 1930년대부터 조몬 토기나 야요이 토기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본에서는 고고학적 연구의 중심에 토기가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토기의 형식을 기준으로 이를 남긴 “조몬인”과 “야요이인”이라는 “민족”을 구분하는 움직임도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민족” 신화는 혼혈에 의해 “일본인”이 성립했으리라는 주장을 반기지 않았고, 황국사관의 시대, “야요이인”이 대륙에서 건너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중심인 “황실”의 유래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 건설”이라는 담론은 “단일민족”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였다. 순혈주의적인 민족주의와 제국 확대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했던 것이다.

패전 이후, 황국사관에서 해방됨으로써 고고학 연구는 다시금 신화가 아니라 유적이거나 유물이 중심이 되었고, 일본 열도 바깥으로부터 “기마민족”이 건너와서 야마토 왕조를 세웠다는 주장도 가능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1960년경이 되

¹ 단, 저자는 최근 들어 인류학자 사이에서는 인류를 인종(race)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그 대신에 집단유전학 용어인 집단(population)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면 토기는 “민족” 구분의 기준에서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변모하게 된다. “조몬인”과 “야요이인”의 자리에 “조몬 시대”와 “야요이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문화”의 근간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쌀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야요이 시대”가 핵심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조몬 시대”가 그 심층을 형성하고 있는가. “일본인”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과학사학자인 저자는 어떠한 경위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러한 질문과 그에 대한 여러 대답들이 만들어져 왔는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동질적인 “일본인”이나 “일본 문화”가 존재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하여 전개되어 온 인류학이나 고고학의 역사를 재검토한다.

신화와는 달리 고고학은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지향하지만, 현대의 과학사학자들은 “과학적”인 연구가 반드시 “객관적”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특정한 유물이나 유적이 주목받게 되는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유적이나 유물과 현대인과의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실증적”인 학문이 어떻게 “인종”이나 “민족,”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왔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근현대 일본의 고고학 및 인류학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고고학이나 인류학에 국한된 것도, 그리고 특별히 일본의 학문에 국한된 것도 아닐 것이다.